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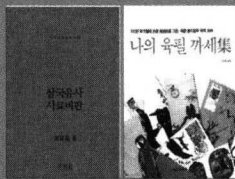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김현동 · 선대인 지음 | 궁리 | 370쪽 | 값 15,000원
8·31대책 등을 계기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부동산 거품의 실태와 해약, 어설픈 정책논리와 공영개발론의 폐해, 건설부패와 공공공사의 예산낭비 등 폐해를 고발한다. 특히 부동산 경제를 왜곡시키는 개발 5적을 해부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의 모형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권명아 지음 | 책세상 | 512쪽 | 값 25,000원
일제 식민지체제를 일관한 파시즘의 실체를 조명하고, 여성과 여성성*이 일제 파시즘에 어떻게 동원되고 작동했는지를 규명했다. 기존의 비슷한 저술과는 달리, 각종 대중적 매체와 자료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사료를 발췌, 파시즘과 젠더정치*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특이한 책이다.



《삼국유사 사료비판》 하정룡 지음 | 민족사 | 420쪽 | 값 20,000원
삼국유사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크게 뒤바꿀수도 있는 저술이다. 삼국유사란 본디 일연과 무국 이외에 또 다른 찬자가 있으며, 완성된 작품도, 고려시대 발간된 것도 이념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외적·내적사료비판을 통해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나의 욕필 까세집》 김성환 지음 | 인디북 | 324쪽 | 값 15,000원
까세는 유포수집가들이 처음 나온 유포를 붙이고, 그것과 연관된 그림을 봉투에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시시만화가 김성환이 그동안 모은 국내 유명화가 111인의 욕필 까세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의 일러스트가 곁들여진 유명화가들과의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읽힌다.



《경매장 가는 길》 박정민 지음 | 아트북스 | 320쪽 | 값 16,000원
그림 감정사인 저자가 보고 겪은 뉴욕 경매장 이야기다. 경매장에 나온 그림에 관한 뒷 이야기, 세계 각지에서 온 갖가지 신분의 예술품 수집광들, 그림과 인생이 얽힌 에피소드가 발랄하고 꾸밈없는 필치로 펼쳐진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배경으로 현대 주류미술계를 스케치한 생생한 경매 일기장이다.

《겨울해바라기》 유영소 지음 | 신민재 그림 | 문학과 지성사 | 208쪽 | 값 8,500원
왜 우리 세계 최고의 입양아 수출국이란 명예롭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을까. 이 소설은 입양아와 성*이란 우회적 시각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생모를 찾아 고국을 찾은 13살 입양아 소년의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성*과 입양아 문제를 사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 우석균 지음 | 해나무 | 342쪽 | 값 18,000원
현지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라틴 아메리카 곳곳을 카메라에 담고 취재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지은이는 아르헨티나 팜파에서부터 안데스산맥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며 그들의 정서와 역사를 진솔하게 드러낸 노래와 문학과 춤을 발췌해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다.

《독일건문록》 김영찬 지음 | 김 & 정 | 304쪽 | 값 9,800원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독일 방문을 앞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나왔다. 지은이는 다년간의 독일 생활을 토대로 현지의 풍속과 문화, 제도와 관습 등 외래 방문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여행가이드가 직접 들려주듯 소개하고 있다.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지음 | 푸른숲 | 306쪽 | 값 9,800원
지구촌 오지를 다니며 봉사와 구호활동에 헌신해 온 지은이가 낸 현장 보고서다. 월드컵 전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한 후의 이야기를 시간대에 따라 엮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구호현장 이야기를 통해 현지인과 현지사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교정시켜주고 있다.

《아버지가 나서면 딸의 인생이 바뀐다》 장경근 · 정채기 지음 | 황금부엉이 | 216쪽 | 값 10,800원
딸의 존재와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요즘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충고로 시작하는 좋은 아빠 되는 법 가이드다. 딸사랑아버지 모임*의 일원인 저자들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틈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친구'로서의 부녀 관계를 만들라고 말한다.

